



## ■ 연구원 주요일정

- 03월 20일(月) : 주간회의(14시)
- 03월 22일(水) : 연구원 야간강좌(18시 30분)
- 03월 25일(土) : 46회 문화강좌(16시)

## ■ 연구원 소식

### ○ 46회 문화강좌 안내

- 날짜 : 2017.03.25(土) 16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나종화 회원
- 주제 : 여행학개론

### ○ 러시아 해외역사탐방 안내

: 작년에 이어 제2차 해외역사탐방이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9일 사이에 5박 6일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탐방의 종착지였던 하바로브스크에서 시작하는 올해 일정은 자유시 참변의 아픔이 있는 스보보드니(옛 이름 알렉세예프스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가 보훈처 지원사업 선정

: 우리 연구원이 광복회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기획한 보훈선양 학술회의사업이 국가보훈처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8월 12-13일 이틀에 걸쳐 『인적교류를 통해 본 전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관계망 구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현장 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춘계 답사 안내

: 우리연구원과 전주대 K-History 2H 특성화사업단이 함께 기획한 문화유산 답사가 4월 8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구례 오일장과 운조루, 방호정, 운흥정 등을 찾을 예정이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에 대한 김천식 회원의 특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좌석 관계로 선착순 20분만 모실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은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 답 사 일 정 표 -

세 부 내 용		비 고
시 간	일 정	
08:40 ~ 09:00	* 전주대학교 집결 및 인원파악	* 09:00 출발
09:00 ~ 10:30	* 전주대학교 - 운조루	*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길 59
11:00 ~ 12:00	* 섬진강 어류생태관	*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47
12:00 ~ 13:00	* 점심식사(오복식당)	*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22-7
13:00 ~ 15:00	* 구례 오일장 탐방	
15:00 ~ 16:00	* 방호정, 운흥정, 수락폭포 견학	*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16:00 ~ 17:30	* 학교 도착	
18:30~	* 저녁식사 및 해산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독 교재로는 『호남의사열전』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이강안 감사 자녀 혼인

: 이강안 감사의 둘째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에서는 아침 7시 반, 벽계가든 맞은편에서 버스가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날짜 : 2017.03.25.(토) 낮 12시 / 장소 : 서울 PJ호텔 1층 뮤즈홀



### ○ 효천지구 내 함대·세내마을 조사 사업 스텝회의

: 3월 1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효천지구 내 함대·세내마을 조사 사업 스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사업은 LH 재개발 사업으로 분산된 전주시 오나산구 함대·세내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주민의 생애를 채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는 12월 마을지와 화보집을 출판할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마을 조사 사업을 위한 일정 조율과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 전북지역 항일운동가 기획연재 회의

: 3월 14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항일운동가 기획연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칭, 우리 지역 항일운동가를 찾아서”는 광복회 전북지부,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 K-History 2H 특성화사업단과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항일투쟁기 우리지역에서 활동한 투사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기획프로그램입니다. 오는 5월부터 전북도민일보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매월 현장답사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 품

#### 洛陽女兒行(낙양여아행)

洛陽女兒對門居(낙양녀아대문거)  
 纔可顏容十五餘(재가안용십오여)  
 良人玉勒乘驄馬(양인옥륵승총마)  
 侍女金盤脍鯉魚(시녀금반회리어)  
 畫閣朱樓盡相望(화각주루진상망)  
 紅桃綠柳垂簷向(홍도록류수침향)  
 羅帷送上七香車(나유송상칠향거)  
 寶扇迎歸九華帳(보선영귀구화장)  
 狂夫富貴在青春(광부부귀재청춘)  
 意氣驕奢劇季倫(의기교사극계륜)  
 自憐碧玉親教舞(자련벽옥친교무)  
 不惜珊瑚持與人(부석산호지여인)  
 春窗曙滅九微火(춘창서멸구미화)  
 九微片片飛花璫(구미편편비화소)  
 戲罷曾無理曲時(희파증무리곡시)  
 妝成祇是薰香坐(장성기시훈향좌)  
 城中相識盡繁華(성중상식진번화)  
 日夜經過趙李家(일야경과조리가)  
 誰憐越女顏如玉(수련월녀안여옥)  
 貧賤江頭自浣紗(빈천강두자완사)

#### 낙양 여인의 노래

낙양의 여인 우리 집 맞은편에 살아  
 그저 그런 용모에 열다섯의 나이로  
 낭군은 옥 재갈 물린 청총마를 타고  
 시녀들은 금 쟁반에 잉어회를 올리는데,  
 화려한 단청에 붉은 누각 서로가 연이었고  
 붉은 복사꽃에 푸른 버들 처마 향해 늘어서서  
 나갈 때는 비단 휘장에 향긋한 수레로 전송하고  
 돌아올 때 파초선으로 비단 장막에 맞이한다.  
 낭군은 젊은 시절에 부귀영화 얻어서  
 의기와 사치가 석송보다 지나친데  
 벽옥 같은 각시가 예뻐서 몸소 춤을 가르치며  
 산호초도 아끼지 않고 남에게 선물하여,  
 봄 창에 날이 밝아 구미등은 빛을 잃어  
 구미등 조각조각 가물대는 불빛 날리고  
 놀이가 파했어도 가무연습 시간 없어  
 곱게 단장 마치면 향로 앞에 앉누나.  
 성안의 부자들을 서로 알고 지내며  
 주야로 귀족들과 교분을 나누는데  
 그 누가 아껴주나? 서시 같은 옥안이  
 빈천하여 강가에서 빨래하며 사는 것을.

## ■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고,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생존 시에 설경산수화로 유명했으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망천도>라는 화권이다.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으나, 후에 제작된 많은 모사품으로 대강의 구도는 보존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 감 상

- 이 시 가운데 나오는 '계륜(季倫)'은 진(晉)나라 때의 부호(富豪) 석송(石崇)을 가리킨다. 어느 날 왕개(王愷)란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한 자 정도 크기의 산호초를 석송에게 자랑하자, 석송은 다짜고짜 이를 때려 부숴다. 그리고는 이를 아까워하는 왕개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높이가 서너 자가 되는 산호초 예닐곱 개를 보여주면서, 왕개에게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라 했다고 한다. 여기서의 왕유의 맞은편 집에 사는 낙양 여인의 남편이 석송에게 지지 않을 만큼 커다란 부자라는 의미에서 가져다 쓴 표현이다.

'월녀(越女)'는 월(越)나라의 미인 서시(西施)를 가리킨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 사대미녀에 속하는데,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미인계로 쓰이기까지 하였다.



♠ 푸른 에게해의 하얀 미코노스 ♠



터키와 그리스의 중간 지점인 에게해의 한가운데에 유난히 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물론 터키에 바짝 붙어 있는 사모스, 칼링로스, 밧모스, 로도스 등 여러 개의 섬들도 있지만 지금 말하고자하는 곳에는 20개가 넘는 섬이 한데 몰려 있다. 이곳을 키클라데스(Cyclades) 제도라 하는데, 이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산토리니(Santorini)를 비롯하여 미코노스, 산토리니, 낙소스 등에는 깨끗하고 호젓한 해변이 있어서 햇볕이 그리운 북구 유럽인들이 찾아와 일광욕을 즐기며 살다시피 한다.

키클라데스의 섬들은 그리스에서 그리 멀지 않다. 그러나 나는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지나가보고 싶어서 선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터키 쿠사다시 항에서 출발한 배는 사모스 섬을 경유하여 여러 섬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유 있게 에게해를 운항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길 잘했다. 항해 중에 만나는 섬들은 코발트 빛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살아 있을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주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런 속도로 가다보니 예상했던 대로 그리스 절반도 못가서 석양이 되어 버렸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낙조(落照)의 색다른 느낌을 즐기다가 미코노스에 내리니 이미 날은 어두워졌다. 숙소가 예약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녁부터 해결하고자 해변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 지역 주민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 사람에게 숙소에 대해 말을 꺼냈더니, 마침 자기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집은 언덕에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다가 펼쳐져 있다. 집이 높은 언덕에 있어서 바다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의 모든 집은 예외 없이 흰색이다. 드물게 청색과 붉은색의 교회의 돔이 눈에 띈다. 푸른 바다에 하얀색 집들이 서로 돋보인다. 마을로 내려가 보니 좁은 골목이 아기자기하고 집들 역시 하얀 벽에 청색 창틀이다.

개성이 강한 그리스인들(특히 에게해 섬)이 어찌 같은 색만 칠할까? 그 이유는 흰색이 푸른 바다에 가장 돋보이는 색이라는 것과 색의 통일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코노스는 풍차와 함께 푸름과 흰색의 조화로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





이번 호 뉴스레터부터 격주로 우리 연구원 최나래 회원의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최나래 회원은 왕실문화와 관련한 전공으로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로 서울여대 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회원 사이에 맺어진 1호 부부며 2015년 경복궁 답사 때 회원들을 안내해 합법적으로 청와대 앞까지 진출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최나래 회원이 진행할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살던 내가 처음 박물관이란 곳에 가본 것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였다.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였는데, 진열장 가득 찬 국보·보물급 유물들을 둘러보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박물관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덕수궁을 거닐며 엄마와 박물관에서 본 유물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석조전 건물의 궁중유물전시관이란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실 유물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곳이었는데 많은 왕실 유물 중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형태의 유물을 만나게 되었다.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전시되었던 초헌>

외바퀴 위에 앉는 자리가 높게 설치된 형태의 특이한 외관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 유물의 이름은 바로 '초헌'이다. 초헌은 조선 고유의 탈 것으로, 막대기를 가마채의 고리에 가로질러 끼운 후 앞뒤에서 사람이 끌게 되어 있다. 앉는 자리가 높게 올라가 있어 권위의 상징이었으므로 왕자와 부마, 2품 이상 관원이 탔으며 무관은 탈 수 없었다.

생김새의 특이함으로 인해 세종 32년(1450)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도 한번 타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사신을 위한 잔치가 파하고 돌아갈 때 사마순(司馬恂)이 청해 예겸(倪謙)이 타고 사람으로 하여금 끌게 하여 근처 다리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 전한다.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초헌>

한동안 잊고 지내던 초헌을 15년 후,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되어 수장고에서 다시 만났다. 궁중유물전시관이 2005년 지금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 개편해 개관하면서 초헌은 수장고로 들어간 이후 전시되고 있지 못했는데, 2012년 상선전시실을 개편하면서 다시 꺼내 '왕실의 행차실'에 전시하였다. 업무를 하다 힘들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지금도 가끔 전시실에 내려가 초헌 앞에서 어렸을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곤 한다. 초헌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전시되고 하반기에는 전시실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다시 수장고로 내려간다.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는 초헌을 상반기에 좀 더 마음에 담아두어야겠다.

간편하게 먹는 건강한 한끼  
구수함은 기본, 더 건강한  
**3가지맛** 누룽지

쌀 / 현미 / 보리



**김제평야의 질 좋은 쌀과 현미,보리로 만든 - 금싸락누룽지**

드 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란 간척지 햅쌀과 현미, 보리로 정성껏 만들기에  
더욱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을 가득 담은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식입니다.

## ■ 금사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사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사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은 심범식 회원(010-5493-50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족애(!!!)를 보인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